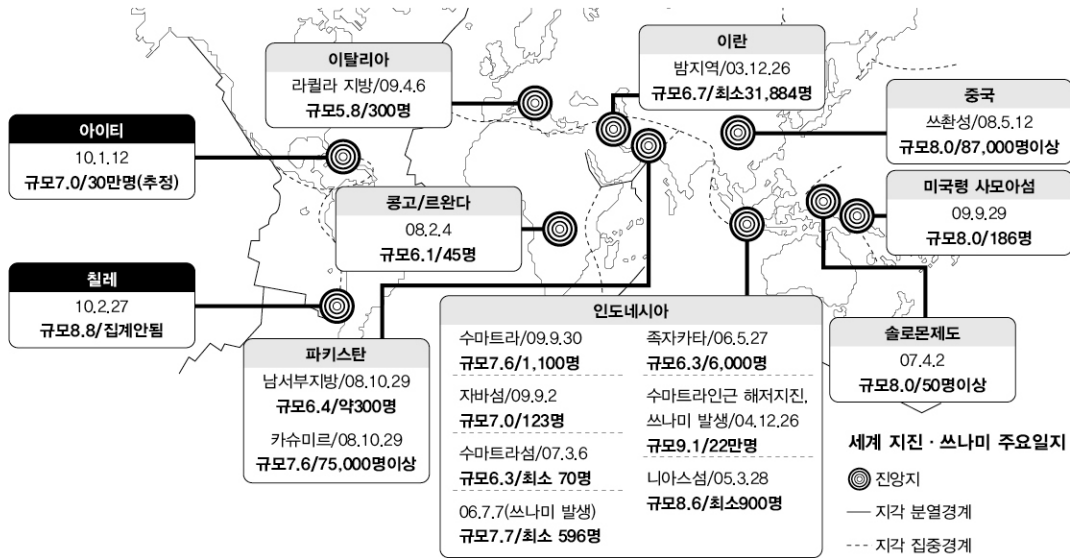


# "칠레에 위로와 용기, 희망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아이티 긴급구호금 22만 달러 추가 지원 및  
 칠레지진 긴급구호금 5만 달러 우선 지원



지진참사로 고통을 겪는 아이티에 세계 각지의 온정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이티를 살려내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칠레마저 진도 8.8의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칠레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의 발표(2010.3.2)에 따르면, 지진 사망자수는 최소 800명에 이르렀으며,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가 상당수 남아 있어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강진으로 인한 이재민 수도 200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와 수도공급은 끊겼고 시내 여기저기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진 발생 후 진도 6.9의 여진이 1회, 진도 4.9이상의 여진만 120차례가 발생하고 있어 칠레 국민들은 계속되는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수많은 지진 피해지역, 그러나 서서히 잊혀져 가는 아이티... 그런데 또다시! 칠레마저 강진과 함께 여진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땅에서 오늘도 희망을 찾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셔서 환경재난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향한 기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 관련내용 2면에 계속 정진석 추기경님의 위로메시지全文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아이티 · 칠레 대지진 참사 지원현황 보고**

2/2(화)	아이티 1차 긴급구호금 6만 달러 · 서울대교구 2차 헌금 2억 5천여만 원 전달
2/22(월)	아이티 긴급구호금 22만 달러 추가 지원
3/4(목)	칠레 긴급구호금 5만 달러 우선 지원
3/14(일)	현재, 아이티 장기복구사업모금 및 칠레 긴급구호 모금운동 전개 중이며 긴급구호기간이 종료되는 데로 지진피해 현지에 조사팀 파견해 장기재건사업 전개 예정

**아이티 · 칠레 대지진 참사 긴급구호 계좌안내**

아이티 :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칠레 : 우리은행 1005-785-11911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문의전화 02-727-2294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개소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받아 3월 22일 개소

▶1면에서 계속

칠레 국민들에게 보내는

정진석 추기경님의 위로 메시지 全文

칠레에 위로와 용기, 희망을...

칠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갑자기 잃고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칠레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위로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한국가리타스를 통해 칠레 지진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후로도 장기복구사업을 위한 교구민의 정성을 모을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칠레 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드리며, 더 많은 선의의 손길이 전해질 수 있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2010년 3월 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하루 100원 모으기  
100만 신자 참여운동

2010년 3월 5일 현재 **44,430명**

하루 100원 모으기 후원안내

● 자동이체신청 02-774-3488

● 지로 7522277

● 인터넷참여 www.obos.or.kr

● ARS 060-700-1117

●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5324-13-001

신한은행 512-03-004088

국민은행 083-01-0309-453

농협 386-01-015833

외환은행 061-22-03709-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진설명. 개소식을 앞두고 전문상담 교육을 받고 있는 센터 상담원

청소년들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248명 ▲2005년 279명 ▲2006년 232명 ▲2007년 309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 2008년에 10~19살 자살자 수는 317명에 달했습니다. 청소년 상담소 등에는 "자살하고 싶다"며 고민을 털어놓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 친구들과의 갈등에서부터 학교 성적 비관, 이성과의 이별 등 그들을 옥죄고 있는 고민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에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본부장 김용태 신부)생명운동부는 본부가 전개하는 생명운동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센터"를 오는 3월 22일에 개소합니다.

자살예방센터는 청소년들의 자살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우선 자살 충동을 느끼는 위기 청소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서비스 및 콜센터(전화상담)운동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온라인 상담을 위한 누리방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자살예방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에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워주고 생명존중의 가치관 형성을 돕는 "청소년 생명학교"를 개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학원 주변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거리 캠페인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청소년 시기에 생명존중의식을 효과적으로 심어주고 생명문화 전파로 청소년의 자살예방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자살예방센터 관련 문의 1599-3079(생명친구)

## 생명을 살리는 힘, 나눔 장기기증, 희망을 찾다

장기기증 신청 1,550명 동참,  
장기이식대기자지원사업 후원(ARS) 1만5천여명 동참



KBS특집생방송 스튜디오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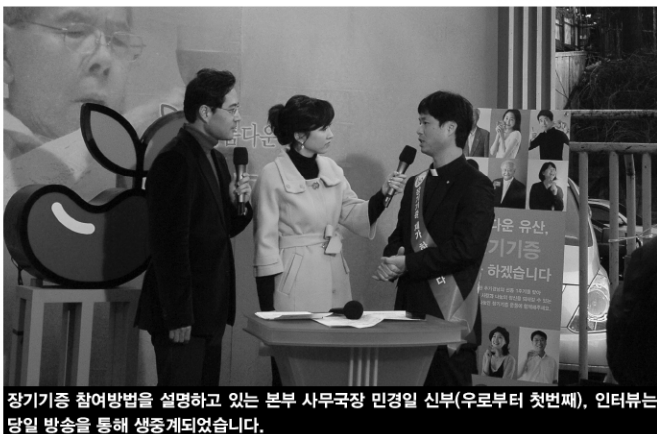
서울명동거리캠페인 현장(2010.2.20)



KBS 스튜디오 현장 - 이날 본부 장기기증상담원은 생방송 2시간 동안 1,110건의 장기기증 신청접수와 문의를 받았으며, 방송 이후로도 그 참여는 계속되었습니다.



서울 명동 거리캠페인에 함께한 시민들과 본부직원 및 봉사자 여러분



장기기증 참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우로부터 첫번째), 인터뷰는 당일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故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맞아 지난 2/20(토), 가톨릭 장기기증전국네트워크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범국민 장기기증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유산, 사랑 나눔’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서울·대전·대구 3개 도시에서 동시 진행됐으며, 장기기증 신청에 1550명, 장기이식대기자 후원에 1만5천여 명이 동참해 이웃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본부를 비롯해 가톨릭 장기기증 전국 네트워크와 한국장기기증원, 대한이식학회, 한국방송공사(KBS)와 함께하는 범국민 캠페인이었으며, 이 뜨거운 사랑나눔 캠페인은 ‘KBS 1TV 특집생방송-아름다운 유산, 사랑 나눔’을 통해 당일 현장 생중계 됐습니다.

이날 KBS 스튜디오에 출연한 본부 홍보대사 양미경 씨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각막 기증을 하고 가신 故 김수환 추기경의 뜻에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나눔에 감동받았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을 믿으며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명동성당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희망의 씨앗 화분을 나누어 주며 시민들에게 장기기증 동참을 호소한 본부 홍보대사인 방송인 최재원 씨는 “평소 어머니의 뜻인 장기기증에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며 “이미 장기기증에 서약했다. 장기기증은 인생의 아름다운 유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명동에서 장기기증 서약서를 작성한 한 시민은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각막 기증 등 좋은 일들을 하고 가셨다”며 “그분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는데 마침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너무나 감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또 하나의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시민과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기기증신청 및 장기이식대기자 후원 문의 02-3789-3488

## 국제협력

### 네팔 해외사업 현장방문 실시



네팔 어린이들과 함께한 국제협력부 최은정 팀장

국제협력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네팔 현장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본부는 올해부터 포카라 도시빈민촌의 주민들을 위한 이동진료를 지원합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의 수행단체와 협력병원 및 단체,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직접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현지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 지역의 식수위생과 보건의료문제를 개선하고 가장자리로 내몰린 이들이 새로운 삶의 동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특히 현지 주민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9기 해단식

띠앗누리 9기가 국제자원활동을 무사히 마치고 지난 2월 22일(월)서울 성 김대건관경당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해단식에서는 띠앗누리 9기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 및 자원활동증 수여와 기념 촬영이 있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9기는 지난 1월 6일(수) 1차 배움터를 시작으로 1월 27일(수)부터 2월 10일(수)까지



캄보디아 현지 청년과 어린이들과 띠앗누리 9기 일동

14박 15일 일정으로 캄보디아 반티프리업(장애우기술학교 외) 및 깜뽕통지역 깜뽕고 마을에서 '도로 개보수 공사 참여 및 문화 교류활동' 등의 자원활동을 했습니다. 이 경험과 나눔이 띠앗누리 활동기간 동안의 잠시 열정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켜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히 다녀온 띠앗누리 9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생명운동

### 환우지원사업

#### 백혈병·난치병어린이지원사업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lm** (몽골) 남, 만 1세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한양대병원	1,000만원
서** 남, 만 8세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실버힐스 병원	400만원

### 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사업

본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기관으로

#### 8년 연속선정!

보건복지부가족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올해 2010년 8년 연속으로 본부를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소중한님들의 사랑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나눔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알리는 소식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 2010년도 정기 이사회 개최

본부는 지난 2월24일(수), 교구청 소회의실에서 2010년도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국제협력사업 16억4천여만 원, 생명운동사업 18억2천여만 원, 국내사회사목 및 사회복지지원사업 8억6천여만 원을 승인하였으며, 나눔문화 활성화와 모금·홍보사업에 5억8천여만 원, 법인운영비 2억7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억2천여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본부를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0년도에도 본부는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평화방송 라디오를 통해 듣는 국내사회복지 현장 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는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FM 오후 3시' 코너를 통해 다양하고 생생한 국내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PBC 라디오 FM 105.3MHz)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 '인간의 대지' 의약품 및 원단 후원

이웃돕기 후원단체인 '인간의 대지'에서 2월 23일(화) 약2억4천 만원 상당의 의약품 및 원단(의류 담요)물품을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에 후원하였습니다. 의약품은 본회 산하 무료병원에 지원하였으며, 원단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해외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대치동 성당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전해온 사랑



대치동 성당(주임 신부 박순재 몬시뇰) 주일학교 학생들이 2년에 걸쳐 '크리스마스 캐롤 돌기'를 통해 모은 130여만 원을 아이티·칠레지진으로 고통 받는 현지 또래 어린이들을 위해 성금으로 전달해 와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본부를 방문한 박서현, 고정희, 안현수, 양정빈 어린이는 전달식에서 "아이티,칠레 친구들이 다시 원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꼭 할거예요.", "아픈 친구들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잘 크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라며 고사리 손길, 그러나 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어릴 때부터 나눔의 마음을 가꿔가는 대치동 성당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아이티와 칠레에 어린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는 어릴 때부터 나눔의 마음을 가꿔가는 대치동 성당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아이티와 칠레에 어린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생애 첫 기부



김종인, 김미숙님은 설아가 태어날 때부터 감사의 마음과 기도를 담아 이웃사랑을 전할 곳을 찾던 중,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를 통해 생애 첫 기부 소식을 접하고 지난 3/12(금) 아기의 돌을 맞아 소중한 나눔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설아의 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설아 (2009. 3. 12 父김종인/ 母김미숙)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